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2일

CUOMO 주지사, 조기 계양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바논 베이루트의 군대 막사 폭파 사건의 제30주기를 맞이하여 2013년 10월 23일에 주정부의 모든 건물에 조기를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220명의 해군, 18명의 항해사, 3명의 군인을 포함한 241명의 미군이 희생되었으며 세계 2차 대전의 Iwo Jima 전쟁 이후 미국 해군에게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이자 베트남 전쟁의 Tet Offensive 첫날 이후 미군에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자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 해외의 단일 공격 중 가장 처참한 공격이었습니다. 241명의 군인 중에서 24명은 뉴욕주 주민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우울한 날에 30년 전 국가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버린 241명의 용감한 개인들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러한 영웅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의 기도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전투 중 또는 전투 지역에서 전사한 뉴욕주의 장병들과 뉴욕주 주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추모하기 위해 모든 주 정부 청사들의 국기를 반기로 게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